

하늘의 상이 큼이라!

헌신된 사람이라면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자신이 내린 헌신 결단에 대해 과연 후회할까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수 많은 고난을 통과했고, 그 때마다 하나님께 "어느 때 까지니이까?"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신뢰를 고백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 13:1, 5-6).

비행기 조종사인 폴 웨슬런은 어느 후원자가 보낸 편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폴, 미국 동부 시간으로 4월 11일 새벽 3:30분에 어디서 뭘 하고 있었죠?" 온 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그는 편지를 받은 날에서 지난 4월 11일로 기억을 옮겨 갔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엔진 둘 중 하나가 꺼진 비행기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살아난다면, 이제 그만 선교지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야지.' 사실 그의 고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전임 선교사로서 정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게 마치 스릴 넘치는 탐험과도 같을 게다. 그러나 20년 정도 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진다. 선교사도 예외는 아니다. 폴은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할 때가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일반 직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에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번역 선교 이야기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4/2	4/3	4/4	4/5	4/6	4/7	4/8
삼상 18-20	삼상 21-23	삼상 24-26	삼상 27-29	삼상 30-삼하1	삼하 2-4	삼하 5-7

비하면 은퇴자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 마치 어항처럼 들여다보이는 삶, 언제나 짠 물건, 옷, 차를 사야 하고 휴가도 짧게 가져야 하는 삶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그가 처음 헌신했을 때보다 더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어느 때 까지니이까...?" 하는 그의 질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여자 분의 편지로 답해주셨습니다.

"폴, 4월 11일 새벽 3시 반, 누군가 내 목덜미를 후려치는 것 같아 벌떡 일어났어요. ... 당신이 지금 어디선가 물 위를 날으며 위험에 처해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밀려왔고,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죠. 약 한 시간 반 동안 기도를 쉴 수가 없었어요. 폴, 괜찮은가요?"
 ("Wounded Sparrow," pp.33~36, *Jungle Flight* by Dane Skelton)

편지를 읽으면서 폴의 눈엔 눈물이 어렸습니다. 바로 그 때가 겨우 착륙할 만한 작은 섬의 해안가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거기

착륙하면 밀물이 들어올 때 비행기가 망가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30여 분을 날아, 15년 간 수천 시간을 넘게 조종한 경력으로, 그의 '신음하는 새'를 비행장에 안전하게 착륙시켰습니다.

얼마 후 친구에게서 킹 에어 비행기 조종사로 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 때문에 그는 "고맙지만 사양하겠다!" 고 답했습니다. "좀 더 멋진 비행기를 몰면서 더 나은 봉급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폴과 라본 웨슬런 부부는 폴이 2011년 사고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까지 인도네시아에 있는 잘스의 자매 기관인 야자사에서 25년간 조종사로 성경번역선교사들과 현지인 사역자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멋진 삶이 있을까!"

그의 아내 라본은 폴이 순직한 후부터는 위클리프 미국 본부에서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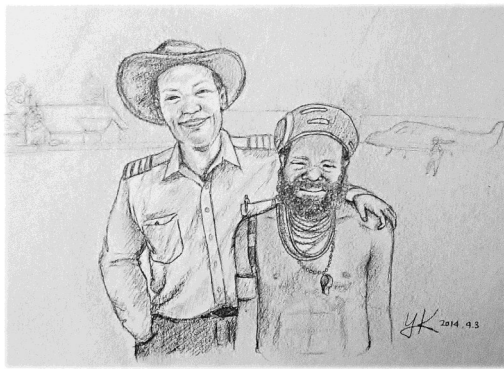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주님 사역자들은 전적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합니다. 저들로 하나님께서 이미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는지 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공급하는 손길이 되어 기꺼이 저들의 이러한 필요도 채워줄 수 있게 하소서.

성경 번역 삶의 변혁 Translating Scripture, Transforming Lives

성경번역 선교를 위한 주간기도제목



Great Reward in Heaven

words by Gyoojun Lee & illustration by Yaeun Kim

We may think that a committed person of God would never look back on their commitment, worrying about his or her future. Even David went through years of suffering until he became the King of Israel, and often cried out to the Lord, "How long, O Lord?" But he never failed to close his prayer with a confession of his unwavering faith in God's steadfast love (e.g. Psalm 13:1, 5-6).

A letter from one of his supporters shocked missionary pilot Paul Westlund as he was asked this question: "Paul, where were you and what were you doing at 3:30 am Eastern Time on April 11?" He got goose bumps as he flashed back six weeks from the date of the letter to April 11. That was exactly when he held a half-dead airplane thinking, 'If I get out of this alive, I'm going back to the States.' This was what he had struggled with.

To the young, serving God in the jungles or giving one's self to full-time ministry of any kind looks like a grand adventure. But 20 years into it, the perspective changes, even for missionaries. Paul realized that retirement was coming,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Sun, Apr 2	Mon, Apr 3	Tue, Apr 4	Wed, Apr 5	Thu, Apr 6	Fri, Apr 7	Sat, Apr 8
1Sam 18-20	1Sam 22-23	1Sam 24-26	1Sam 27-29	1Sam 30-2Sam 1	2Sam 2-4	2Sam 5-7

and his nest egg was nowhere near the size of his friends' in the secular world. The strains of life in the fishbowl, always forced to wear cheaper clothes, drive cheaper cars, and take cheaper, shorter vacations, start to grind. Life seemed tougher than it had to be, and God seemed farther away than he was when Paul was young.

But to his question 'until when, O Lord?', God gave an answer through this lady's letter.

"Paul, ... At 3:30 in the morning of April 11, someone slapped me on the back of the neck. I woke up immediately, ... then I became intensely aware that you were in trouble over water, and I need to pray for you. I prayed. I could not stop praying for an hour and a half. Paul, are you OK?" ("Wounded Sparrow," pp.33~36, *Jungle Flight* by Dane Skelton)

Paul's eyes were filled with tears as he read this letter. 3:30 in the morning of April 11 was exactly when he sighted the beach of a small island. If he had landed, the plane would have been destroyed

when the tide rose. He pushed on for another half hour or so and finally landed his ailing bird at the home base safely with 15 years and thousands of hours of skill.

Soon after this happened, he got a job offer from the US. He was guaranteed for piloting the King Air, a luxury plane. But because of this letter, he answered "Thanks, but no thanks." He was not able to simply "trade the prayers of God's people for the coolness of flying a jet and the money it would bring."

The Westlunds served in Indonesia for 25 years at YAJASI, a partner organization of JAARS, serving with Bible translators and national workers until he was called to God in the plane crash in 2011. He faced difficult trials of this sort many times but "he could regularly be heard saying, 'Isn't this just the best life a guy could have!'"

Paul's wife LaVonne has been working at the head office of Wycliffe USA since Paul died in the line of his duty.



Week 14 Prayer: Dear Lord, many workers are fully dependent on your provision. Please help them see how abundantly you have blessed them. Also encourage your people to see the need of those workers and gladly become your hands of provision.

Translating Scripture, Transforming Lives

